

한국축구대표팀, 12년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포르투갈과 카타르월드컵 H조 3차전서 2-1 승
황희찬, 후반 추가시간에 손흥민 패스 받아 결승골
6일 오전 4시 'G조 1위' 브라질과 8강 진출 다툼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3일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황희찬(울버햄튼)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1승1무1패(승점 4)가 된 한국은 포르투갈(2승1패 승점 6)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이다. 또 2002 한일월드컵(4강), 2010 남아공월드컵(16강)에 이어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이다. 같은 시간 우루과이가 가나를 2-0으로 꺾었지만 조별리그 통과는 우리 몫이었다. 한국은 우루과이(1승1무1패 승점 4)와 승점, 골득실(0)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국이 4골, 우루과이가 2골이다. 한국-포르투갈의 경기가 먼저 종료됐기에 경기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만약 우루과이가 가나에 3-0으로 승리했다면 2위는 우루과이의 차지였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추가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벤투호 코치진과 선수들은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 16강 확정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 경기장을 채운 한국 팬들도 두 손을 모으며 기원했고, 우루과이가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햄스트링 이상으로 1·2차전에 결장했던 황희찬은 교체 멤버로 그라운드를 밟아 16강 진출을 이끄는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마스크 투혼에도 불구하고 공격포인트가 없었던 손흥민(토트넘)은 황희찬의 결승골을 돕는 멋진 패스로 활짝 웃었다. 한국은 오는 6일 오전 4시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G조 1위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다툰다. 가나와 2차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벤치에 앉지 못한 파울루 벤투 감독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임했다.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 코치도 활짝 웃었다. /뉴시스



지난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최종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2대 1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4시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G조 1위 브라질과 8강 진출을 다툰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16강 진출에

"가장 극적인 마무리 중 하나"

지난 3일 한국이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승리하며 극적인 16강 티켓을 거머쥔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가 "월드컵 조별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무리 중 하나"라며 찬사를 보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카타르월드컵 H조 3차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킨 황희찬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후반 역전골, 우루과이를 조 3위로 떨어뜨려”
결승골 황희찬 두고 “경기 승리로 이끌었다”

워하며 지켜보고 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6분이나 남았다며 손에 땀을 쥐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가나 경기 가 2-0으로 끝나고 한국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한 것이 확정됐을 때,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한국이 역전골로 앞서 나갔고, 우루과이를 조 3위로 떨어뜨렸다”며 “월드컵 조별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무리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국은 이날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시작 5분 만에 포르투갈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김영권과 황희찬의 골에 힘입어 2-1로 포르투갈을 꺾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포르투갈에 이긴 벤투호가 우루과이-가나의 경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은 조금 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지금은 우루과이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지 않기만을, 피로

선수들의 기쁨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졌고, 서로를 끌어안고 물을 공중에 뿌리며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표팀은 골라인 앞에 있는 팬들 앞으로 다이빙 세레머니를 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결승골을 넣은 황희찬을 주목했다. 매체는 “황희찬은 추가 시간에 드라마틱한 골을 넣어 한국을 2-1 승리로 이끌었다. 그들의 세 번째 월드컵 16강 진출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선 두 경기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한 황희찬은 금요일 마침내 출전했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며 황희찬을 극찬했다. /뉴시스

FIFA, “아시아 3개국 16강 진출은 최초”... 중심엔 손흥민

국제축구연맹(FIFA)이 아시아 돌풍을 주목했다. 중심에는 손흥민(토트넘)이 있다. FIFA는 지난 3일(한국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과 호주, 일본이 녹아웃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월드컵 사상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3개 팀이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함께 올린 사진엔 손흥민을 중심으로 양 옆에 호주 해리 사우더(스토크 시티FC)와 일본 도안 리츠(SC 프라이부르크)를 배치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는 월드컵 새 역사를 합작했다. 이날 한국은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2-1로 꺾고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앞서 호주는 D조 2위, 일본은 E조 1위로 16강에 안착했다. 한국까지 합류하면서 AFC 소속 3개 팀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더욱 강해진 ‘아시아 파워’를 선보였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AFC 소속 6개국이 나선 가운데 이중 절반이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16강에 탈락했지만 1승씩을 남기며 아시아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다. /뉴시스

PARK SANG WOOK

LEE HOE CHAN

Pf. 박상욱 & Vc. 이호찬
듀·오·리·사·이·틀



박상욱 & 이호찬 Duo Recital

2022. 12. 6 (TUE.)
7:30 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문화공간 이룸, 문화재단
후원 전주맹꽁이호랑이문화재단
티켓 전석 3만원
예매방법 네이버 예약 '박상욱&최호찬 듀오리사이틀' 검색
문의 063-223-5323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